

배움의 기록, 삶의 이야기.



2025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LIFELONG EDUCATION VOUCHER

공모전 우수사례집

배움의 기록, 삶의 이야기

2025 서울특별시



공모전 우수사례집

CONTENTS

평생교육이용권	04
---------------	----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방법

2025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공모전 수상작

학습수기

최우수상	08
------------	----

우수상	14
-----------	----

장려상	28
-----------	----

N행시

최우수상	51
------------	----

우수상	52
-----------	----

장려상	53
-----------	----

사용기관 우수사례

우수기관	57
------------	----

평생교육이용권이란?



시민들이 원하는 평생교육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수강료로 결제하실 수 있는 35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정부-지자체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	1인당 35만 원
지원 사항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 교재 단독 구매 및 재료비 등 사용 불가

지원 대상 및 유형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성인 중

일반 이용권	19세 이상 성인
디지털 이용권	30세 이상 성인
노인 이용권	65세 이상 성인
장애인 이용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장애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포함) 우선 선정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방법

신청인 명의로 NH농협(채움)카드 발급 후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

- * 채움카드 기존 소지자의 경우 추가 발급 없이 기존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되며,
미 소지자의 경우 카드 발급 후 지원금 충전됨 (지원금 충전 완료 시 문자발송)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온오프라인 평생교육기관에서 카드 포인트 결제

- *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의 경우, 디지털 사용기관에서만 결제 가능

유의사항

- ✓ 본인 사용 및 수감이 원칙입니다.
- ✓ 성인 대상 강좌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기존 평생교육희망카드는 사용하지할 수 없습니다.
- ✓ 교재를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강좌를 수강하는 사용기관에서 결제해야 합니다.
- ✓ 단독 교재 구매, 재료비, 전자·통신기기, 전자교재(PDF, e-book) 등에는 사용하지할 수 없습니다.
- ✓ 미등록 기관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결제하면, 개인 계좌에서 출금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 ✓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받은 채움카드 지원금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됩니다.

사용기관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 www.illcard.kr/seoul 에서 사용기관 안내 클릭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전국 온·오프라인 평생교육기관에서 사용 가능

일반 이용권	일반 사용기관
디지털 이용권	디지털 사용기관
노인 이용권	일반 사용기관
장애인 이용권	일반 사용기관



2025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공모전 수상작

학습수기



최우수상

인생 2막, 따뜻한 빵으로 굽다 -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과 함께한 나의 도전 - 서*중	08
요리로 다시 찾은 자신감과 삶의 맛 - 김*혁	10
꿈의 앱을 커다 - 박*정	12



우수상

늘 반복되는 일상, 지친 하루 끝 캔버스 위에서 찾은 나만의 행복 - 조*정	14
두려움의 벽을 넘게 해준 티켓, 평생교육이용권이 선물해 준 '더 넓은 세상' - 지*림	16
'언젠가'에서 '지금'으로,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한 기회 - 김*연	18
배움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 위*종	20
평생교육이용권 학습 수기 - 박*송	22
평생교육이용권이 가져온 작은 용기, 큰 변화 - 권*원	24
기세, 다시 피어나는 봉사의 꿈 - 박*민	26

장려상

배움의 기회를 선물받다: 배움에서 귀촌, 그리고 재능기부까지 - 정*숙	28
배움을 넘어 희망을 나누는 안내자로서의 삶에 눈을 떴습니다. - 김*찬	30
처음 가져본 나만의 시간 - 박*인	32
절망에서 희망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이 만들어 준 꿈 - 강*형	35
인생의 불을 다시 켜다 -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쌍기사 도전 - 이*인	36
평생교육이용권을 통해 배운 '나를 돌보는 방법' - 나*원	38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시작된 새로운 걸음 - 이*선	40
아이와 함께 성장한 나의 평생학습 이야기 - 이*운	42
행복을 주는 평생교육이용권 - 박*진	45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과의 만남으로 활력 넘치는 노인 일자리도 얻었다. - 한*희	47



최우수상

인생 2막, 따뜻한 빵으로 굽다

-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과
함께한 나의 도전



서*중

코리아요리아카데미 (제빵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나이가 들어도 가슴 뛰는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꿈을 향해 기꺼이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2025년,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은 제게 그런 '두 번째 삶의 문'을 열어준 따뜻한 열쇠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평범한 일상을 살아오면서도, 제 마음 한 구석에는 늘 고소한 밀가루 냄새와 따스한 오븐의 열기가 감돌았습니다. 빵을 유난히 좋아했고, 나름대로 손맛이 있다는 주변의 칭찬은 늦은 나이에 '제빵'이라는 새로운 직업에 도전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은퇴 후 5년쯤 작은 빵집을 열어, 인생의 노하우와 정을 듬뿍 담은 빵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제가 그려보는 인생 2막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배움의 길은 언제나 그렇듯, 문턱이 높았습니다. 전문적인 제빵 기술을 배우는 데 필요한 만만치 않은 학원비와 재료비는 선뜻 도전을 망설이게 하는 현실적인 벽이었지요. 그때 제게 희망의 빛처럼 다가온 것이 바로 <2025년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이었습니다. 이 소중한 지원 덕분에, 저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오로지 배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학원에 등록하고 처음 빵 반죽을 시작하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TV나 책에서 보던 전문가의 손길과는 달리, 제가 만든 반죽 둥글리기는 마치 제 어설플 마음처럼 뭉치지 않고 걸돌기만 했습니다. 이리저리 굴려보고 치대 보아도 매번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힘들었고, 발효 시간을 놓쳐 주저앉은 반죽을 볼 때는 서글픔마저 느껴졌습니다. '이 나이에 뭘 시작한다고..,' 하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기도 했죠.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학원에서 전문적인 제빵 기술을 배우고, 집에 돌아와서는 밤늦도록 혼자 연습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도록 손 반죽을 치대고, 오븐 앞에서 고심하며 색을 확인하는 일과의 반복이었습니다. 성실함과 끈기만이 기술과 재능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발효기가 없어서 전기장판을 켜고 이불을 덮어서 발효했습니다. 손목은 아려 왔지만 반죽이 매끈해지고 생명을 얻어 부풀어 오르는 경이로운 순간을 경험할 때마다 저는 묘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기술은 머리가 아니라 손으로 익히는 것"이라는 강사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땀 흘린 노력 끝에 마침내 제빵기능사 필기시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해, 필기는 생각한 것보다 어려웠고 익숙지 않은 저에게 큰 고비였습니다. 1차 필기에 떨어져서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포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기회를 버릴 수 없어서 며칠 밤을 새우고 다시 도전을 해서 좋은 점수로 합격하였습니다.

더 큰 도전은 실기시험이었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계량, 섬세한 반죽 온도 조절, 능숙한 성형 기술, 그리고 정확한 굽기까지. 시험은 다소 쉬운 과제가 나왔지만 모두에게도 쉬운 과제라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고, 긴장 속에서 손이 떨렸지만, 그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반죽의 감촉과 오븐을 바라보던 눈빛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장에서 만난 다른 젊은 수험생들 사이에서 느꼈던 위축감도 잠시, 저는 제게 주어진 시간을 묵묵히 채워나갔습니다. 정말 턱걸이 점수로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확인했을 때, 그 안도감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해준 서울시에 대한 고마움과, 늦깎이 배움에 열정을 쏟았던 제 자신에 대한 격려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이 없었다면, 이 모든 과정은 저에게 무거운 짐으로 남아 시작조차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비용 걱정 없이 오직 꿈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준 이 고마운 제도가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품고, 새로운 일터를 찾아 인생 2막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년 후, 제가 직접 구운 따뜻하고 정직한 빵을 이웃과 나누며 작은 빵집을 운영하게 될 꿈을 꾸면 가슴이 벅차옵니다.

저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재취업 성공기가 아닌, 평생교육이용권이라는 사회적 제도가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경제적인 이유로 꿈을 망설이는 수많은 이웃에게, 이 제도가 희망의 밀가루와 물이 되어 반죽처럼 부풀어 오르는 인생을 선물해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저의 인생에 따뜻하고 고소한 향기를 더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작은 성공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모두가 '배움에는 늦음이 없다'라는 진리를 깨닫고 자신만의 2막을 준비할 용기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우수상

요리로 다시 찾은 자신감과 삶의 맛



김*혁

한솔요리커리바리스타제과제빵학원 (기초요리)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을 한 뒤, 혼자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할 줄 아는 요리라고는 된장찌개와 계란볶음밥이 전부인데, 그렇다고 매일 같은 메뉴만 먹을 수도 없었다. 게다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저녁에 돌아오는 가족들을 위해 식사라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커졌다. ‘요리를 좀 제대로 배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예전에는 대충 끓여도 가족들이 ‘오~ 맛있다’라고 말해주곤 했지만, 이제는 아이들도 입맛이 까다로워지고 나 역시 나이를 먹다 보니 집밥의 퀄리티가 은근히 중요한 문제처럼 느껴졌다. 결국 큰 결심을 하고 요리학원을 알아보았는데, 수강료를 보는 순간 잠시 숨이 멎었다. 1회 수업료가 웬만한 호텔 뷔페 가격이라니... 순간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행히 평생교육이용권이라는 든든한 지원이 있었다. 부족한 금액은 결국 내 지갑에서 빠져나갔지만, ‘그래, 가족을 위한 투자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용기 내어 결제 버튼을 눌렀다.

첫 수업 날, 강의실 문을 열자 흰 요리사 복장을 한 남자 강사 한 분이 나를 맞이했다. “오늘은 일대일 수업입니다.” 그 말에 긴장감이 확 올라왔다. 마치 오디션장에 들어선 느낌. ‘내 칼질이 어설프면 바로 퇴출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상상까지 했다. 하지만 강사님은 조용하지만 자상한 설명과 작은 칭찬을 아끼지 않아, 금세 긴장이 풀렸다. 첫 메뉴는 치킨마요덮밥과 새우고로케였는데, 내가 만든 새우고로케가 생각보다 제법 그럴싸하게 나와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 ‘아, 나에게도 요리의 잠재력이 있었구나!’ 하고 속으로 웃었다.

두 번째부터는 그룹 수업이 시작됐다. 정년퇴직 후 요리를 배우러 오셨다는 중년의 아저씨가 환하게 인사해 주셨고, 그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양념 순서를 비교하며 “아이고, 내가 틀렸나 보네” 하고 웃는 분위기 속에서 금세 친근함이 생겼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와 비슷한 또래나 비슷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오겠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 번째 수업 날, 학원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졌다. 앞치마를 두른 대학교

남학생 두 명이 씩씩하게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강사님까지 포함해 우리는 남자 다섯 명.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아니, 요리를 배우러 왔더니 어느새 남자 실습팀이 되어 버렸네?’ 마치 중년&청년 남자 특집 요리 예능에 출연한 기분이었다. 서로 칼질을 비교하며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라고 물으며, 세대가 달라도 음식 앞에서는 모두 학생이 되는 모습에 묘한 유대감이 생겼다.

수업이 거듭될수록 ‘남자 넷의 주방 대장정’은 점점 더 재미있어졌다. 설익은 수제비를 들고 “왜 이렇게 뭉쳤지?”하고 다 함께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볶음요리 중 불꽃이 치솟자 대학생 둘이 동시에 “오!” 하고 외쳐 강사님을 놀라게 하는 등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어느새 나도 긴장을 내려놓고, 아저씨 특유의 넉넉한 미소로 요리를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집에서 일어났다. 수업에서 만든 음식을 들고 돌아가는 날이면 가족들은 현관문 소리만 나도 달려 나왔다. 아이들은 “아빠, 오늘은 뭐 만들었어?”하며 기대에 찬 눈으로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고, 아내는 “요즘 밥상이 훨씬 풍성해졌네?”라며 은근히 자랑스러워했다. 그 모습을 볼 때 마다 ‘정말 배우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왔다. 그동안 요리는 나와 거리가 먼 취미라고 생각했지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걸 새삼 실감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다. 예전에는 레시피만 봐도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장만 봐도 ‘아, 이걸 이렇게 하면 맛있겠다’하는 감이 생긴다. 작은 변화지만 내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리고 이 변화의 시작점에는 평생교육이용권이 있었다. 그 지원이 없었다면 새로운 배움을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더 절실해진다는 걸 느끼며, 국가의 지원이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체감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것도 고맙지만, 그보다 새로운 취미와 자신감을 얻게 해준 것이 더 감사하다. 덕분에 나는 또 다른 나를 발견했다.

앞으로도 요리를 계속 배울 생각이다. 언젠가 우리 가족에게 ‘아빠의 시그니처 메뉴’ 한 가지쯤은 꼭 선보이고 싶다. 평생교육이용권 덕분에 시작한 작은 도전이 내 삶을 더 풍요롭고 즐거운 길로 이끌고 있다. 이제 누가 “요리 배우길 잘했나요?”라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 없이 말할 것이다. “네. 덕분에 제 인생이 한층 더 맛있어졌습니다.”라고.



꿈의 앰프를 켜다



박*정

시운렘 실용음악학원 (일렉 기타 강좌)

나는 음악을 듣는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나만의 자유를 느낀다. 이어폰 너머로 들려 오는 감정을 울리는 기타 톤, 격렬하지만 섬세한 밴드 사운드, 그리고 세상에 없는 색깔을 가진 멜로디는 고단한 학업 생활 속에서 나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동력이었다. 힘들었던 날에는 강렬한 기타 리프 하나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긴장되는 순간에는 규칙적인 리듬이 나를 안정시켜 주었다. 나에게 음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게 도와주는 것이었다.

중학생 때부터 이렇게 밴드 음악을 사랑했기에, 귀로만 들던 그 소리를 언젠가 내 손끝으로 직접 연주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10대 시절에는 입시라는 거대한 벽에, 대학생이 된 지금은 경제적 부담이라는 현실에 부딪혀 그 꿈은 늘 마음속 한구석에 미뤄 뒀다. 특히 일렉 기타는 악기 구입 비용과 매달 들어가는 레슨비가 만만치 않았기에, 학업과 병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입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취업을 하면 배우겠다는 핑계로 나를 달래며 시간은 흘러만 갔다. 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문턱이 나를 망설이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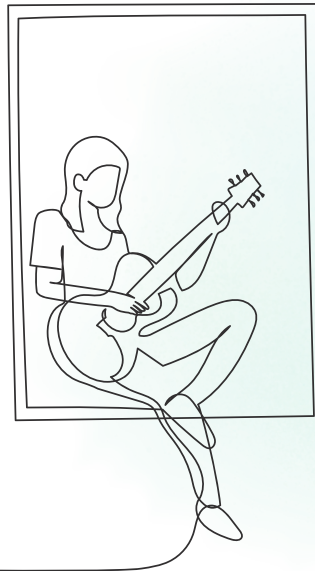
그러던 중 우연히 접하게 된 2025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은 내게 단순한 지원금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내가 외부 환경 때문에 주저하고 포기하려 했던 꿈을 다시 움직이게 하였다. 이 제도가 나 같은 청년의 배움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어, 떨리는 마음으로 일렉 기타 기초 수업 8회를 등록했다. 망설임으로 보낸 긴 시간을 뒤로 하고, 드디어 내 꿈을 향해 첫발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첫 수업 날, 상상 속에서는 이미 프로 연주자처럼 자유로웠지만 현실은 코드 하나 잡는 것조차 버거운 초보자였다. 하지만 그마저도 내가 원하던 것을 배우고 있다는 기쁨과 만족으로 다가와 오히려 즐거웠다. 8회의 수업 동안 나는 기타라는 악기가 얼마나 예민하고 섬세한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많은 매력을 가졌는지 알게 되었다. 선생님의 지도 아래 내가 좋아하던 노래의 리프를 서툴게나마 따라 연주했을 때, 귀로만 들던 위로가 내 손끝을 통해 만들어지는 경험을 했다. 듣는 사람에서 연주하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나는 왜인지 모를 뿌듯함과 행복을 느꼈다.

평생교육이용권을 통한 8회의 수업은 끝났지만, 나의 배움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용권은 나에게 기타 치는 법이라는 기술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학습할 수 있는 힘과 끈기를 길러주었다. 수업을 통해 기초를 다진 덕분에, 이제는 혼자서도 악보를 보고 연구하며 연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나는 이제 수동적인 청자에서 곡을 더 연구하고 느끼는 능동적인 연주자로 성장했다. 예전에는 단순히 감탄하며 듣기만 했던 곡들을 이제는 이 주법은 어떻게 한 걸까, 이 소리는 어떻게 내는 걸까라고 탐구하며 듣게 되었다.

일상 속에서 틈틈이 기타를 잡고 연습하는 시간은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즐거운 탈출구가 되었고, 더 다양한 곡에 도전하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다. 어제 안 되던 코드가 오늘 다시 연습해서 소리가 날 때의 성취감은 내가 계속 도전하고 연습하게 만들어준다. 그저 듣는 음악에서 내 손으로 연주하는 음악으로의 변화는 나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어주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나는, 배움은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에게 열려 있는 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은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현실에 치여 잊고 지냈던 나의 작은 꿈을 다시 발견하게 해주었다. 나는 이제 음악을 듣는 사람에 머무르지 않는다. 아직은 서툴고 부족하지만, 나만의 소리를 내기 위해 오늘도 기타를 잡는다. 이 소중한 기회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연주하고 배우며 내 삶을 나만의 멜로디로 채워갈 것이다. 언젠가 내가 연주하는 기타 소리가 과거의 나처럼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기를 꿈꾸며, 나는 오늘도 즐겁게 배우고 연습할 것이다.





우수상

늘 반복되는 일상, 지친 하루 끝 캔버스 위에서 찾은 나만의 행복

조*정

퇴근 후 미술원 (소묘, 유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7년 동안 홀로 딸을 키워 온 40대 엄마입니다. 아이가 3살 때부터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 저에게는 제 자신보다 '생계'와 '책임'이 늘 우선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저는 미술을 누구보다 좋아했지만, IMF라는 시대적 아픔과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미술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제 딸은 저를 닮아 미술을 좋아했고, 디자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딸이 제가 못다한 미술 공부를 하는 모습이 대견하고 기특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나도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딸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제 꿈을 위해 지갑을 여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배움에 대한 갈증은 잠시 미뤄 두고 있었는데, 중랑구청 블로그에서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를 모집합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기회가 올까?" 하는 간절함이 닿았는지 운 좋게 선정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용 가능한 시설을 찾던 중, 직장인도 다닐 수 있는 상봉역 근처의 '퇴근 후 미술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재료비 부담 없이 자유롭게 그림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덕분에 수강료 걱정 없이 일주일에 두 번, 두 달간의 과정을 신청했고, 퇴근 후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수업은 시간에 쫓기던 저에게 완벽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기본기부터 다지기 위해 3주간 소묘를 배웠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유화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애 첫 유화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색을 섞을 때마다 의도치 않은 탁한 색이 나와 당황스러웠고, 그때마다 흰색으로 덮어버리고 처음으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선생님께서 건넨 말씀은 그림뿐만 아니라 제 인생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유화는 실수를 해도 그 위에 덧칠해서 수정할 수 있어요. 덧칠하다 보면 그림에 깊이가 생기고 더 근사해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힘겨웠던 시간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덮고 그 위에 새로운 색을 쌓아 올리니 그림이 더욱 깊고 멋지게 변하듯, 제 인생 또한 고난을 참고 견뎌낸 덕분에 '책임감 있고 멋진 엄마'라는 깊이 있는 작품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일주일에 두 번, 학원 가는 날은 제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색을 칠해볼까?" 하는 설렘은 건조하고 지쳐있던 제 일상에 작은 선물이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에게 단순한 수강료 지원 그 이상이었습니다. 현실의 벽 앞에 멈춰 섰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배움을 이어주는 사다리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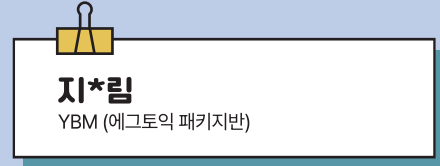
경제적 이유로 20년 넘게 미뤄 뒀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게 해 준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처럼 생계와 육아로 꿈을 미뤄 뒀던 모든 분들이 이 이용권을 통해 저처럼 가슴 뛰는 설렘을 다시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의 벽을 넘게 해 준 티켓, 평생교육이용권이 선물해 준 '더 넓은 세상'



1. 시작의 두려움, 그리고 평생교육이용권과의 만남

과거의 저에게 '새로운 시작'이란 항상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단어였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경제적인 부담과 실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높은 장벽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평생교육이용권'은 그 견고했던 마음의 벽에 작은 문을 내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 이용권을 신청했을 때만 해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 '골든 티켓'이었습니다.

2. 단순한 수강료 지원을 넘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준 상담

2023년 초, 보건 계열 입시를 준비하던 저는 평생교육이용권을 들고 한 컴퓨터 학원을 찾았습니다. 단순히 자격증 취득을 위한 방문이었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제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학원에서는 단순히 강의를 등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진로 방향을 꼼꼼히 듣고 보건의료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신력 있는 자격증들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만약 평생교육이용권이 없었다면,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학원 문턱을 넘을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고, 이런 전문적인 진로 상담을 받을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막연하기만 했던 미래에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고, 지식을 채워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싶다는 열망을 심어준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3. 호주라는 기회의 땅으로 이끌다

평생교육이용권이 만들어 낸 기적 같은 나비효과는 대학 진학 후 본격적으로 빛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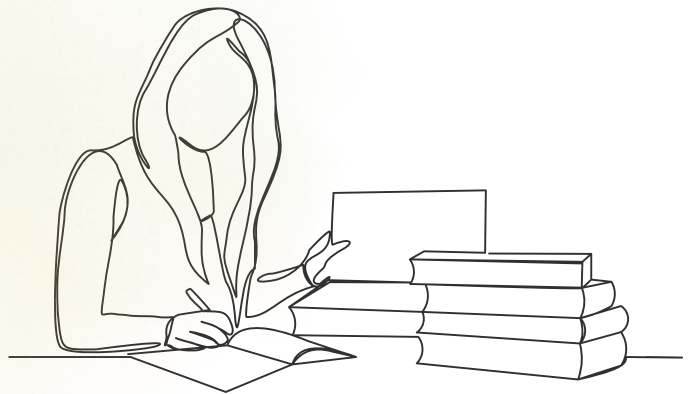
2022년 여름, 이용권으로 취득한 토익 성적 덕분에 저는 학교 대표로 '글로벌 현장학습'에 선발되어 호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4개월간 낯선 해외에서 현지 실습을 하며, 저는 스스로 한계 짓던 좁은 사고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더 넓은 의료 현장을 경험하며 '어디서든 내 몫을 해내는 사람'이라는 직무적 확신을 얻었고, 저는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배우려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용권이 선물해 준 이 경험은 제 가능성의 크기를 바꿔놓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4. 다시 한 번 평생교육이용권과 함께, 대학병원을 향해

이번 여름방학, 저는 치과 임상 실습과 평생교육이용권을 활용한 토익 공부를 병행하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목표 점수를 달성했고, 현재 꿈꾸던 대학병원 입사를 당당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용권을 통해 배움의 가치를 깨달았기에, 취업 후에도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를 통해 4학년 학사 학위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제 20대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준 소중한 기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멈추지 않고 배우는 자세로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우수상

‘언젠가’에서 ‘지금’으로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한 기회



김*연

더블유컴퓨터아트천호학원 (컴퓨터활용능력 2급)

“컴퓨터 자격증은 언젠가 꼭 따야지.”

이 말은 내가 몇 년 전부터 스스로에게 계속 건네던 약속이었다. 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문서 작업과 컴퓨터 활용은 앞으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중요한 기술임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용 공부까지 병행하다 보니, 시간도 체력도 늘 부족했다. 학원 등록은 늘 비용 부담이 마음에 걸렸고, 독학을 해보려고 책도 사보고 강의도 찾아 들었지만, 혼자서는 집중도 어렵고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진도가 멈춰 버렸다. “언젠가 해야지”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지금은 여건이 안 돼서’라는 핑계 뒤에 숨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자격증 취득은 오래 붙잡고만 있던 과제로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제도를 알게 되었다. 처음엔 ‘나도 해당될까?’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살펴본 정도였는데, 신청이 승인되고 문자로 안내를 받았을 때는 생각보다 큰 안도감이 찾아왔다. 단순히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보다도, 계속 미루던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기가 생겼다는 점이 더 크게 다가왔다. ‘아, 이제는 정말 해도 되는구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오래 쥐고만 있던 자격증 취득이라는 목표가 다시 손에 잡히는 느낌이었다.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선택한 곳은 컴퓨터 학원이었다. 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서 작성 능력은 필수에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은 실무적으로 활용도가 높아 꼭 취득하고 싶었다. 학원 첫날, 문을 열기 직전 느꼈던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하다. 독학으로 이해가 어려웠던 함수, 표 서식, 데이터 처리 기법들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과, ‘과연 끝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작은 두려움이 동시에 있었다. 학원 수업은 직접 엑셀을 다루며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는 방식이어서 이해가 훨씬 빨랐다. 낮 동안에는 아르바이트와 임용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학원으로 향하는 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내 하루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다. ‘오늘은 이런 기능을 새로 배웠다’는 작은 성취가 누적되면서 피곤함보다 기대감이 더 커졌고, 예전과는 달리 공부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느낌이 분명하게 들었다.

무엇보다 평생교육이용권이 아니었다면 비용 문제로 인해 학원 등록 자체를 고민하느라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 자주 떠올랐다. 경제적 부담이 사라지니 배우고 싶은 마음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고, 그동안 미뤘던 목표를 마침내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 달간의 학원 수업은 훌쩍 지나갔다. 특히 계산 작업 파트는 가장 어려운 구간이었는데, 실수도 많고 좌절도 있었다. 하지만 막힐 때마다 선생님이 주신 피드백을 반복해 따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아, 이제 손이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몇 주 정도 혼자 복습하며 기출문제를 풀었다.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이었지만, 학원에서 다져진 기본기가 있었기에 이전과 달리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시험 날,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앉아 문제를 하나 하나 풀어나가며 그동안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긴장감 속에서 마지막 문제를 풀고 자리에서 일어설 때, 이미 나에게는 스스로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몇 주 뒤 발표에서 ‘합격’이라는 글자를 보았을 때는 뭔가가 뻥 하고 터지듯 마음이 벅차 올랐다. 오래 미뤘던 과제를 마침내 완성했다는 성취감은 그 어떤 보상보다 큰 기쁨이었다.

이번 자격증 취득은 단순히 기술 하나를 익혔다는 의미를 넘어섰다. 평생교육이용권은 나에게 ‘지금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용기를 주었고, 그 용기가 결국 내가 원하는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가게 해주었다.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은 앞으로 수없이 반복될 문서 작업과 수업 자료 제작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실무 능력이다.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의 교직 생활을 상상할 때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배움 앞에서 주저하던 지난날의 나를 조금씩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보면 나는 배우고 싶다는 마음은 분명했지만, 경제적 여건과 현실적인 부담 앞에서 선택을 미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평생교육이용권 덕분에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지원금이 교육에만 사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내가 배우고자 하는 목표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이 제도의 가장 큰 힘이었다. 이 경험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꿈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교사라는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그 길 위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통해 얻은 배움의 경험은 확실한 기반이 되어주었다. 이 제도는 나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다,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이 두 달간의 시간을 떠올리면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우수상

배움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위*종

국제컴퓨터학원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강좌)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나는 가방을 메고 지하철을 타고 강남에 있는 컴퓨터 학원으로 향했다.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의 혜택을 받아 평소 내가 배우고 싶었던 컴퓨터 강좌를 수강하기 위해서였다. 날씨는 더웠지만 무언가를 새로 배운다는 기쁨은 발걸음을 가볍게 했고 또 학원에서는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기 때문에 빠른 걸음을 걸었다. 오가는 지하철 안은 좀 붐볐고 학원이 강남에 위치하고 있어 거리엔 많이 사람들이 오갔다. 집안에만 주로 거처하던 내게 학원 수업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과 동시에 마실을 나갔다 오는 것 같은 시원함을 동시에 주었다.

작년엔 평생교육이용권을 통해 한자2급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했다. 서울시의 연이은 도움으로 올해엔 평소 배우고 싶었던 컴퓨터 과목에 도전했다.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강좌이다. 한글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정말 배우고 싶었다. 기업에서 사무직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20대 이후 거의 평생을 조울증으로 시간을 보내온 나에게 사무직은 일종의 꿈과 같았다. 처음 직업으로 삼았던 공장이나 택배 상하차,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의 임시직은 나에게 직장이란 느낌을 주기에 조금 부족했다. 그 후로 다른 직업을 가지긴 했지만 ‘무엇을 배워서 돈을 번다’라는 개념은 없었다.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원장님께서 다정한 인사로 맞이해 주시고 나는 내 컴퓨터가 배정된 책상으로 가서 컴퓨터를 켜다. 담당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교재를 펴고 교재에 나온 내용대로 따라 하면서 선생님의 문답을 통해 스스로 내용을 학습해가는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교재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었고 선생님의 지도가 자세했기 때문에 학원 수업은 별 어려움이 없었다.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는 나에게 새로운 배움이였다.

평생교육이용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모르지만 이 계기가 나에게 직접적으로는 학원에 나가 강의를 듣고 새로운 강좌를 듣게 했으며 간접적으로는 삶에 변화를 주지 않았나 싶다. 스스로가 무

언가를 찾아 새로운 것을 체험해 본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매우 힘든 일이었다. 조울증이란 병이 우울증과 조증의 반복이라 기분 변화가 심해 정상적인 삶의 영위가 일반인에 비해 다소 힘든 점이 없잖아 있기 때문이다. 그냥 평생교육이용권이 있으니 아무 것이나 배워보자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학원에 나가고 집 밖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은 일종의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싶다.

무엇이든지 사람이 변하거나 삶이 변하려면 자극제가 필요하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정리하는 데 산책이란 것 등이 필요하듯 두 달간의 수업은 알게 모르게 나를 변화시킨 것 같았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

지인을 통해 한 종교 단체에 나가게 되었고 선한 사람들을 통해 조금씩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잘 못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었지만 용기를 내었다. 그것이 꼭 평생교육이용권의 효과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일의 전후가 수업을 듣고 나서 생긴 일이라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년에 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3학년 과정에 편입을 하게 되었다. 20대 시절 조울증으로 그만둔 학업을 다시 이어가게 된 것이다. 학원에서 배운 것이 유용히 쓰일 수 있을까? 계속되는 도전이다.

작년에 한자를 배우기 시작했고 올해에는 컴퓨터 강좌를 배웠으며, 내년엔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물론 내 스스로 세운 뜻은 아니다. 나라에서 돕고 또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공부를 하게 되었다.

평생교육이용권이 어떤 사람들에게겐 그냥 무의미한 시간들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겐 뜻하지 않은 반가운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제도를 만든 사람들의 의도는 아마도 작은 배움을 통해 무언가 변화를, 또는 생활의 활력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한다. 곳곳에서 배움을 주고 받고 또 서로 돕고 하는 가운데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서로 빈 곳을 채워주면서 남는 것은 나누고 모두가 자신의 일을 행복히 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수상

평생교육이용권

학습 수기



박*송

퍼스트바리스타학원 (케이크디자인마스터 과정)

이혼이라는 큰 사건 이후, 제 삶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깊은 우울과 불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밤이 되어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 잠들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책임감은 여전히 제 어깨 위에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매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은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미안함, 저 자신을 다잡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까지 겹치며, 하루하루는 그저 ‘버티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지 않으면 정말로 제 삶이 멈춰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우고 시작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지만, 경제적인 현실 앞에서 또다시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학원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투자할 여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과연 대상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망설였지만, 작은 용기를 내어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놀라움과 함께 짧지만 강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제 삶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긍정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제가 시도한 일이 통과됐다는 뿌듯함, 그리고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 왔습니다. 그 작은 확인의 순간이 제 안에서 꺼져가던 불빛을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배움은 제과제빵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베이킹을 좋아했지만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었습니다. 학원 첫날,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반죽을 만지는 제 손은 어색했고, 오븐 열기조차 낯설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제 마음을 조금씩 안정시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밀가루 향, 반죽을 치대는 감각, 오븐 속에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모습,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치유였습니다.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것은 빵이 아니라 배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과제빵은 생각보다 섬세하고 반복이 많은 작업이었습니다. 작은 온도 차이 하나로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졌고, 실패가 반복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좌절감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과 동료들이 건넨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계속하면 돼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시 일어섰고, 저는 다시 반죽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손에서 만들어지는 빵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빵을 맛보고 “맛있다”고 말해줄 때마다,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제과제빵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합격 문자를 보던 순간, 눈물이 핑 돌 만큼 벅했습니다. 제 손으로 취득한 자격증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제 삶이 다시 일어선다는 증거였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 저는 제과제빵 관련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출근 첫날 앞치마를 매고 주방에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몽클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일하고, 제 손으로 만든 빵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와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출근하는 일, 가게를 채우는 빵 냄새, 하루를 분주하게 보내고 돌아오는 길의 뿌듯함. 이 모든 게 제 삶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너졌던 제 자존감이 천천히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평생교육이용권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선택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서게 만든 기회였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망설였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저는 단순히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저는 다시 일어서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앞으로도 배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두 아이에게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언젠가 저처럼 무너진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싶어하는 누군가에게 제가 받은 이 용기와 경험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제게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제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준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회를 붙잡아 지금 이 자리까지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수상

평생교육이용권이 가져온 작은 용기, 큰 변화



권*원

노원한솔요리학원 (왕초보요리반)

나는 33세 청년이다. 2000년, 초등학교 2학년,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에 희귀난치성 질환을 진단 받고 긴 투병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신장 투석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가 버거웠고, 삶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기에 어머니께서 신장을 공여해 주셔서 이식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투석 치료만 중단되었을 뿐, 건강 관리를 위한 식단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이식 수술 전부터 시작된, 나트륨 섭취량 조절, 칼륨 함량 체크, 단백질 관리 등 먹는 음식 하나가 내 건강을 좌우했다. 병원의 영양사 선생님의 조언을 받으며 음식 조절을 했지만, 전해질 수치의 불균형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내 삶에서 ‘먹는 것’은 복용하는 약만큼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이 좌우되기 때문에 늘 조심스러웠다. 그동안 어머니는 늘 세심하게 내 식사를 챙겨주셨고, 그런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제는 내 몸을 내가 지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다.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던 나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던 중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알게 되었다. ‘이 기회라면 나도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용기가 생겼다. 평생교육이용권 덕분에 경제적인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다는 점도 큰 위안이 되었다. 망설이던 나는 어머니의 격려를 받으며, 요리를 통해 나의 건강과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용기를 내어 노원한솔요리학원에 등록했다.

첫 수업 날, 앞치마를 두르고 조리대 앞에 섰을 때의 떨림이 아직도 생생하다. 재료를 씻는 법, 칼을 잡는 법, 불 조절 하나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다. 하지만 강사님은 나의 속도를 존중하며 차근차근 알려 주셨고, 함께 수업을 들었던 분들도 따뜻하게 응원해 주었다. 덕분에 나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건강에 맞는 조리법을 배웠다는 점이다. 강사님께 내 상황을 말씀드렸

더니, 다양한 방법으로 내 몸에 맞는 조리법 등을 개인적으로 알려주셨다. 덕분에 나는 단순히 요리 기술만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한 맞춤형 식단 관리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어머니께 첫날 만든 음식을 드렸을 때 그 어느 때보다 활짝 웃어주신 그 표정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날 나는 ‘배움’이 단순한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재료를 고르는 기준을 알았고,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의 조리 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요리는 나에게 ‘건강 관리’이자 ‘자립’의 시작이 되었다.

가만히 생각해본다.

무엇보다 평생교육이용권이 아니었다면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배움이었다는 생각에, 그 고마움이 새삼 다시 느껴진다. 돌아보면, 내가 요리를 배우기까지 필요한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용기 하나였다. 그러나 그 작은 용기는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죽을 때까지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으면서 투병의 시간을 보내야겠지만, 나는 이제 ‘나의 건강을 위해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것은 단순한 요리 그 이상의 의미였다.

이 경험은 나에게만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처럼 건강 문제나 장애 때문에 새로운 배움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은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작은 배움 하나가 일상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고, 자립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나는 그 변화를 몸소 경험했다.

이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면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나도 배우고는 싶은데, 나이도 있고 자신이 없어.”

그럴 때마다 나는 평생교육이용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배움의 문턱을 낮추고,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기에 누구의 인생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기회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고 생각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이 내 삶에 가져왔던 변화처럼, 누군가에게도 따뜻한 용기와 새로운 삶을 느끼게 해주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아울러, 내 인생에 남을 소중한 기록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



우수상

기세, 다시 피어나는 봉사의 꿈



박*민

허브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안녕하세요. 올해 71세가 된 늦깎이 도전자입니다.

오래 전 시작하였으나 조금만 하면 끝나는 것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접어두었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평생교육이용권 덕분에 다시 시작하게 되어 이 지면을 빌려 그 감사함을 나누고 싶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이 나이에 공부를 한다는 것에 모두가 말렸지만, 이번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을 알고 후회하는 일은 다시 만들지 말아야지를 반복하며 더듬거리면서 컴퓨터에 앉아 온라인 강의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9월에 시작하여 중간고사를 마치고 이제 학기말 시험과 실습이 남았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돌아서면 앞 페이지가 생각나지 않았지만 반복을 하면서 조금씩 익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서툴고 어려웠지만 차근차근 풀어나가다 보니 어느덧 마지막 단계로, 실습 기관을 찾고 신청하고 나니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얼마 전 OO구청에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열악한 대상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의 사람들이 늘 마음속에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돕고 싶다는 간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칠십 평생을 살아오며 얻은 지혜와 경험을 어떻게 하면 사회에 이롭게 쓸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봉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에 다시 사회복지사의 길을 택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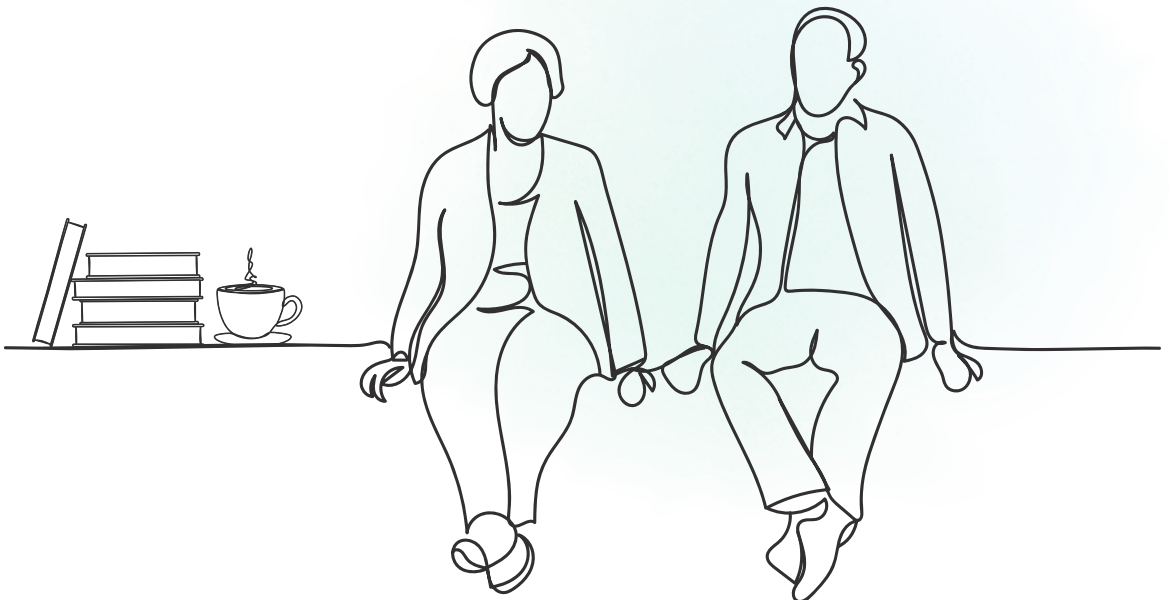
이 길을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것은 바로 나라에서 지원해 준 평생교육이용권입니다.

경제적인 부담 없이 배움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기에, 제 꿈은 막연한 바람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목표가 될 수 있었어요.

'이 나이에 무엇을 새로 시작하겠어'라는 주변의 시선이나 스스로의 걱정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도 이 소중한 지원 덕분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일에 지원이 더해져, 더 큰 용기와 도전으로 실현되어 감사함을 느낍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여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바로 진심 어린 봉사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비록 작은 힘일지라도, 제 배움과 경험을 통해 그분들의 삶에 작은 빛이라도 밝혀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댈 어깨가 되어 주고, 외로운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 배움을 통해 단순히 자격증을 얻는 것을 넘어, 남은 생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71세에도 멈추지 않는 저의 도전이 또 다른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평생교육이용권이 열어준 이 아름다운 배움의 기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회에 이바지하고, 많은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멋진 사회복지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장려상

배움의 기회를 선물받다

: 배움에서 귀촌, 그리고 재능기부까지



정*숙

디어블룸가족공방 (가족공예)

평생 직장생활을 하면서 감히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생활비로만 쓰기에도 항상 빠듯한 월급과 업무에 시달리고 난 퇴근 후의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었습니다. 퇴직 후 지금도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파트 타임으로 여러 일을 하면서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교육비가 부담이 되어 마음만 먹고 있었지 당장 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마음만 먹고 있던 차에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제도를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도 좋은 제도이구나 하고 무릎을 치면서 “노인” 부문에 신청하게 되어 운 좋게도 당첨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기쁘고 좋았습니다. 평소에 마음만 먹고 재료비와 강습료가 너무 비싸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가족공예를 배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가족의 질감, 한 땀 한 땀 이어가는 바느질의 흐름, 그리고 완성되었을 때의 실용성과 성취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배움을 향해 작은 용기를 내어 가족공예를 배우고 있습니다.

작은 카드 지갑, 파우치, 아들을 위한 크로스백을 만들어 선물해줬더니 아들이 ‘엄마, 이렇게 좋고 귀한 가방을 메고 다녀도 되냐’고 하면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작품을 하면서 나의 손끝은 점점 더 섬세해졌고 새로운 분야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만든 작품을 선물하며 그들의 미소를 볼 때 느끼는 보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깊었습니다. 교육비와 재료비가 부담되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가족공예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나를 성장시키는 또 하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움의 기회를 얻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좋은 제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가족공예처럼 전문적이고 고급 재료를 다루는 교육은 자부담으로는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하지만 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새로운 배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는 소중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삶의 균형을 찾아가며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새로운 배움을 통해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두 번째 기회’와도 같은 제도입니다. 특히 퇴직 이후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배우고 싶어도 쉽게 도전할 수 없었고 포기하려 했던 도전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사람들에게 실제로 배울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주는 제도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포기하려 했던 도전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그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더 성실하게 배우고 성장하겠다는 다짐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고마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와닿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죽공예를 단순한 취미로만 머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전문적인 기술을 익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나아가 자격증 취득이나 소규모 전시 혹은 공방을 차려서 판매와 창업까지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배움의 즐거움을 나누는 가죽공예의 매력을 소개하는 작은 모임 운영도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몇 년 후에 귀촌하여 이 배움을 지역 사회와 나누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제도의 도움으로 배우게 된 기술을 다시 나눔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제게는 자연스러운 감사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사랑방 같은 공방을 꾸며서 가죽공예를 배우고 싶은 어르신들이나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재능기부 수업을 진행한다던 이 제도가 만들어준 선한 영향력이 제 주변으로 넓게 퍼져 나갈 것이라 믿으며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가죽공예처럼 재료비가 높고 전문성이 필요한 교육은 평소에는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교육이용권”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제대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의 자신감과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죽공예를 배우는 모든 시간은 내 삶에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해준 제도에 대한 감사함으로 더욱 겸손하고 단단해지고자 합니다. 내 손으로 만든 작품들이 쌓이듯 앞으로의 시간도 나만의 속도로 정성스럽게 채워가고 싶습니다. 가죽공예를 통해 시작된 이 배움의 여정이 앞으로의 삶을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 갈 것이라 믿으며 “평생교육이용권” 홍보대사도 함께 하겠습니다.



장려상

배움을 넘어 희망을 나누는 안내자로의 삶에 눈을 땀습니다.



김*찬

101머니랩 (타로자격증&취업패키지)

반 세기 이상을 살아오면서 배움의 소중함을 늘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우연히 발견한 ‘평생교육이용권(디지털 유형)’ 플래카드는 제게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기회에 설레는 마음으로 웹서핑을 하며 어떤 강의를 들을지 신중하게 찾아 보았습니다.

수많은 온라인 강좌 중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타로 강좌였습니다. 평소 친구가 명리학을 공부해 운을 풀이해주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읽어낼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고, 그 답을 타로에서 찾고 싶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타로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타로마스터의 첫 강의에서 저는 크고 묵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의는 타로 카드 설명보다 먼저 점술가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대담자는 단순히 미래를 알고 싶어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깊은 고민을 안고 찾아옵니다. 점술가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담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한 미래를 제시해주는 안내자여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과거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고민 앞에서 제 방식만 옳다고 이야기하거나, 상대의 상처를 고려하지 못한 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조언했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 나는 그동안 대담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구나"라는 후회와 뼈아픈 깨달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타로가 단순한 점괘가 아니라, 대담자의 고민을 듣고 행복을 안겨주는 진정한 상담 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드의 상징을 통해 대담자의 마음 상태를 비추고, 그들의 두려움을 줄여주며, 희망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타로가 가진 진짜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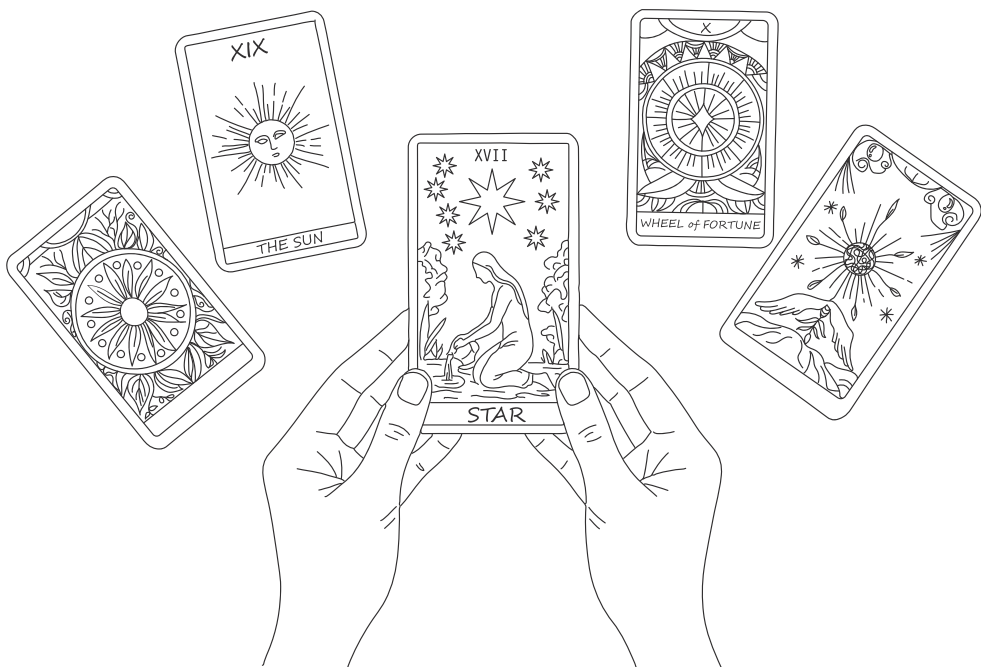
과정에서 상담자 또한 타인의 삶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성장하게 된다는 점이 저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과정을 성실히 수료했고 마침내 “국제타로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배움 앞에서 나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 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배우고 있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디지털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교육을 통해 저는 오히려 마음이 더 젊어졌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받아들이며 세상과 다시 연결되었고, 진심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다는 오랜 바람을 타로를 통해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있습니다. 바로 AI 기술과 타로 상담의 따뜻함을 결합하여 사용자에게 안식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타로 앱을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 지친 하루를 보내고 앱을 열었을 때, "괜찮아요, 잘될 겁니다"라는 말을 건네주는 따뜻한 한 줄기 빛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디지털 유형)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두 번째 인생의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초대장 덕분에 용기 있게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배움의 기쁨을 넘어,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고자 다시 한 번 힘껏 살아보려 합니다.





장려상

처음 가져본 나만의 시간



박*인

요가하는 나무 (힐링, 테라피, 인요가)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한 제도인 평생교육이용권에 대한 수기를 써보고자 합니다.

저는 예순 중반의 나이를 살고 있습니다. 문득 인생을 돌이켜보니 하루하루는 바쁘게 지나가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해 뭘 해본 기억은 거의 없었네요. 가족 챙기고, 집안일 하고, 병원도 들락날락 다니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 속에서 저는 '나 자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점점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다 커 집을 떠나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조용함이 좋았지만, 어느 순간 저는 저만 남은 공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었고, 잠을 자도 썩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지고 흐트러진 내 모습을 보며 혼자 '아 나는 이제 너무 늙어버렸다'라는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서운하기도 하고, 무기력함이 견잡을 수 없이 커져 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돌파구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나이에 무얼 더 배우고,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을 소개해주더군요. 공부, 운동, 여가 생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운동이나 공부 등 뭔가를 배우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나는 늙었고 이젠 어디에 도전하는 것은 무섭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여지껏 살아오면서 문화생활, 여가생활이라고 할 만한 활동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하는 건 돈도 드는데, 저에게는 늘 사치라고 여겼어요. 사실 살아오면서 돈이 항상 제 1순위 고려 요소가 되었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늘 미루곤 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다가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걸 엄마가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평생을 나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던 나에게 누군가가 '너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해 주는 걸 듣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

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보았고,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없어도 제 마음이 나이에 맞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삶에 활력이 도는 듯했습니다.

무엇을 해볼까 고민하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게 얼마 만인지... 고심 끝에 근처에 있는 요가원에 등록했습니다. 운동이라기보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수업이라 적혀 있었고, 이걸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수업 날, 강의실 문을 열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요가원에는 젊고 예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었고,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도 있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센터에 갔고, 생각 외로 50대 60대 여성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왕 시작한 것 열심히 하자는 생각에 굳어진 몸으로 수업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지금 이 시간만큼은 오직 나만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집안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야 ‘나만 생각해도 되는 시간’이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 벅창거든요.

첫날 요가 매트 위에 앉아 몸을 움직였지만, 역시나 몸은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발끝에 닿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조차 힘들어 비틀거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민망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했다는 기쁨을 요가매트 위에서 느꼈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몸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손끝이 발 끝에 조금 더 닿고, 굽었던 허리가 펴지면서 움직임이 미세하게 조금씩 매끄러워졌어요.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몸보다 마음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요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고, 바람을 느끼고, 주변을 천천히 살피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니다 보니 운동복에도 욕심이 생겨 중고등 여학생들처럼 무슨 색 어떤 모양의 운동복을 또 마련할까 즐거운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100원이라도 더 저렴한 물건을 사려고 마트 마감 세일만을 기다리고 있었을텐데 말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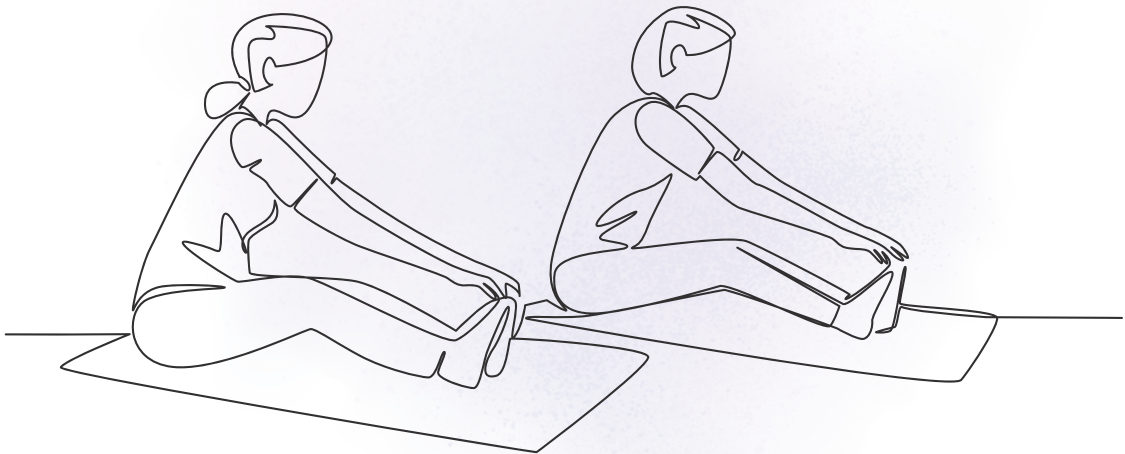
어느 날에는 수업 후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는데 얼굴은 그대로지만, 눈빛에서 생기가 도는 나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요가를 꾸준히 다니며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작은 칭찬과 격려가 쌓이면서, 저는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자기돌봄이 얼마나 인간에게 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깨닫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카드 덕분에 저는 용기 내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배우고, 성장하고, 또 다른 수업에도 도전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기회가 생긴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수영장에도 도전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저처럼 망설이는 60대 이상의 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 딱 시작하기 좋은 시간이라고요.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은 내 삶을 다시 열어준 열쇠라고 말하고 싶네요.

금전적 부담 때문에 시도조차 못했던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고, 겁쟁이 꼴보인 나도 배울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거든요. 이 제도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내 삶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이렇게 제 마음을 울릴 줄은 몰랐네요. 감사드립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이 만들어 준 꿈

강*형

맘보바리스타 제과제빵학원 (제과기능사)

저는 7년 전, 예상치 못했던 사고로 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삶은 어둠과 좌절로 가득 차 있었고,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아무런 희망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듯한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며 지내던 시간, 배움의 의욕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용기도 모두 잃은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에 대해 알게 되었고, '누구나 배울 권리가 있다'는 취지에 작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을 받아 제과기능사 수업을 신청하면서, 오랜만에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이 자그마한 시작이 곧 저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수업은 처음엔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버터쿠키를 만들고, 마들렌 반죽을 하며,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와 친구들의 응원 속에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장애로 인해 손이 느리고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모두가 차별 없이 함께 배우는 과정에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과기능사라는 뚜렷한 목표가 생기니 삶의 방향이 다시 보였습니다. 시험 준비는 녹록지 않았지만,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속적인 지원과 따뜻한 교육 환경 덕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재료를 만지고, 오븐을 돌리며 얻는 성취감은 그동안 잃었던 희망을 다시 품게 해주었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단순한 교육비 지원이 아니라, 절망에 놓였던 제 인생에 다시 빛을 비추어준 소중한 희망의 씨앗입니다. "나도 누군가처럼 다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를 얻은 뒤로 저는 다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작은 제과점을 열어보고 싶다는 꿈까지 품게 됐습니다.

이번 학습수기를 통해, 서울평생교육이용권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리고 장애와 절망에 놓인 사람들도 희망을 되찾을 수 있음을 꼭 알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배울 권리가 주어지는 사회, 그리고 그 권리를 누리며 앞으로 튼튼히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이의 인생에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이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장려상

인생의 불을 다시 켜다

-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쌓기사 도전



이*인

예두원원격평생교육원(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단기 패스)

거울을 들여다보면 깊게 패인 주름살이 먼저 보입니다. 1958년생 개띠, 어느덧 6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가장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은퇴 후 마주한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막막했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저를 생존의 최전선으로 내몰았습니다. 가족을 건사해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무작정 건설 현장에 뛰어들었지만, 야속하게도 사고는 예고 없이 닥쳐 왔습니다.

현장에서의 불의의 사고는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장애를 남겼습니다. 건강했던 몸이 무너지자 더이상 현장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문을 두드렸지만 기술 없는 60대를 반겨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회는 저를 그저 쉬어야 할 노인이자 장애인으로만 분류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집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것뿐 이었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라는 자괴감과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단절된 채 무료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우연히 접하게 된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은 멈춰버린 제 인생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나이와 장애에 상관없이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취지는 꼭 저를 위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처를 둘러보았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다양하고 많은 강의 종류와 사용기관의 수에 놀랐습니다. 직업교육 외에도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진로개발교육 등 선택의 폭이 무궁무진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고심 끝에 소방설비기사에 대한 강의를 선택하였습니다. 은퇴와 사고를 거치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느꼈던 소방설비의 중요성을 떠올리며 사회에 꼭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기술 자격증인 만큼 독학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려고 했지만,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비싼 강의를 결제하기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에 평생교육이용권을 알게 되어 경제적 부담 없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이 없었다면 저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도전조차 하지 못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굳어버린 머리로 오랜만에 시작한 공부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돋보기를 써야 교재의 깨알 같은 글씨가 보이고, 강사님의 설명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젊은 친구들이라면 한 번에 이해했을 내용을 저는 다섯 번, 여섯 번 반복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과목 종류 외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까지 선택할 수 있어서, 제 상황에 맞게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선택하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멈췄다가 다시 듣고, 이해가 될 때까지 다시보기를 누르며 제 속도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매달린 끝에, 지난 2024년 저는 소방설비기사(전기 분야) 최종 합격이라는 기적 같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합격 문자를 받은 날, 가족들과 함께 정말 많이 기뻐했습니다. 사고 후에 느꼈던 서러움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위축되어 있던 제 가슴 속에서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뜨거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전기 분야 합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소방 설비는 전기와 기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현장에서 진정한 전문가로 인정받으려면 기계 분야까지 섭렵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변에서는 하나 땀으면 땀지 그 나이에 무슨 사서 고생이냐며 말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배움의 맛을 알아버린 제게 장애와 나이는 더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저는 다시 한 번 평생교육이용권의 도움을 받아 소방설비기사(기계 분야)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기계 역학은 전기보다 더 까다롭고 어려웠지만, 지난 1년간 공부했던 경험과 바우치가 지원해주는 양질의 강의 덕분에 묵묵히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는 기계 분야 필기시험에 당당히 합격하고 이제 최종 관문인 실기시험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기시험까지 통과한다면 저는 소방설비 분야의 쌍기사(전기, 기계 자격증 모두 보유)가 됩니다. 이는 젊은 분들도 해내기 어렵다는, 그동안의 노력과 땀이 만든 값진 훈장입니다.

저에게 소방설비 쌍기사 자격증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퇴와 사고로 인해 끊어졌던 사회와의 끈을 다시 이어준 동아줄이자, 땀뻑한 가장으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존심입니다. 저는 이 자격증을 무기 삼아 소방 관리 전문가로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생 2막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은 단순한 수강료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던 저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 당신도 할 수 있다’라는 응원이었고, 식어가던 제 인생의 열정을 다시 태우게 한 불씨였습니다.

1958년생 늦깎이 수험생인 제가 해냈듯이, 배움 앞에서는 어떤 장애도 걸림돌이 될 수 없고 어떤 나이도 늦지 않았다는 것, 모두가 배움을 통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준 평생교육이용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려상

평생교육이용권을 통해 배운 ‘나를 돌보는 방법’



나*원

봄필라테스요가 (기구 필라테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2차 선정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생각은, 그동안 평생교육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었습니다. 교육 관련 직종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성인 학습자를 위한 공공 지원이 시민의 삶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평생교육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깊이 파악해 본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통해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지원 구조와 운영 방식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간과해 온 ‘성인의 학습 환경’이라는 주제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평생교육이용권이 학습자가 자신의 요구에 따라 학습활동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바우처라는 점을 이해하면서, 평생학습을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는 관점의 필요성도 새롭게 느꼈습니다.

제가 선택한 학습은 필라테스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쉽게 시작하지 못했던 분야였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을 접한 뒤 지금이라면 그동안 미뤄 왔던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요리나 자격증, 피아노 등 여러 교육 분야 중 필라테스를 선택한 이유는 신체 활동이 일상의 흐름을 안정시키고 업무 효율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시작한 뒤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생활 리듬의 안정감이었습니다. 퇴근 후 주 2~3회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면서 하루를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루틴이 생겼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몸을 움직이는 시간은 머릿속의 긴장을 풀어 주었고, 업무로 쌓인 피로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단순히 운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일정 속에서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 경험이 많지 않아 초반에는 동작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사의 안내를 따라 근력과 유연성이 조금씩 좋아지는 변화를 확인하면서 배움의 성취감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몸의 변화는 마음가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스스로의 생활을 잘 조율하고 있다는 감각이 탄탄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필라테스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제 생활 전반의 균형을 회복시켜 준 소중한 배움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이 가진 공공적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수강료 일부를 보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인이 새로운 배움을 시도할 때 마주치는 여러 장애물을 실질적으로 넘게 해주었습니다. 비용 부담뿐 아니라 정보 접근성, 지역적 제약 등을 모두 고려해 설계된 구조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용권 플랫폼에서는 지역별·분야별로 강좌를 쉽게 검색할 수 있어, 직장과 집 사이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를 현실적으로 비교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직업능력·시민참여 등 다양한 분야를 직접 탐색하며 나에게 맞는 수업을 고를 수 있었고, 이는 성인의 학습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느꼈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하며 느낀 가장 큰 깨달음은, 성인 학습 기회를 넓히는 정책이 개인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평생 교육이 특정 목적이나 연령층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필요에 맞춰 삶을 설계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생활습관, 건강, 시간 관리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이는 공공의 교육 지원이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제가 느낀 변화를 친구와 동료에게 공유하자 제도 자체를 처음 알았다는 반응이 많았고, 실제로 강좌를 찾아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개인의 경험이 주변의 학습 참여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며, 공공 교육 정책이 가진 파급력의 의미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을 통한 필라테스 수강은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게 해 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동시에 성인 학습자가 공공의 지원을 통해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교육이용권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자신에게 맞는 배움을 발견하고, 그 배움이 각자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의 학습에 꾸준히 도전하며 배움을 일상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번 경험은 단순한 취미의 시작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더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설계하도록 이끌어 준 의미 있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일상에서 나를 돌보는 시간을 되찾으면서 삶의 방향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작은 배움이 삶의 여러 부분을 바꿔낼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첫걸음을 가능하게 한 것은 시민 개개인의 배움을 실제로 지지하고, 누구나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더 많은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장려상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시작된 새로운 걸음



이*선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베이비시터양성)

47개월 아이를 40개월까지 가정 보육하며 육아에 집중했던 시간을 지나니 나에게 돌아온 것은 경력 단절이라는 현실이었다. 아이 교육비는 아끼지 않아도, 나를 위한 투자에는 지갑이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평생교육이용권 홍보문을 보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기간이 맞아서 지원하게 되었다.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나니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이제 뭘 하면서 살아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선물처럼 받은 평생교육이용권으로 근처 여성개발센터를 방문했다. 육아하기 전에 하던 일과는 다른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었다. 그러던 중 눈에 들어온 ‘베이비시터 양성과정’은 4년 동안 육아하며 쌓은 경험을 녹여낼 수 있을 것 같아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고민은 사치, 바로 결정하고 등록했다.

오랜만에 듣는 수업에 설렘으로 참여했다. 다른 수강생 분들은 나보다 10살 이상은 많은 분들이었는데 배움의 열정은 누구보다도 뜨거웠다. 그 모습을 보며 아직 늦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나도 새로운 시작에 더 힘을 내봐야겠다고 생각하며 하루 4시간, 10회 여정을 시작했다.

이론적 배움 없이 아이를 키웠는데 이론을 접하고 보니 내 아이의 신생아 시기도 생각나고, 비록 이론은 몰랐지만 그렇게 키우는 게 맞았구나 했던 부분도 있었고, 몰라서 놓치고 지나갔던 부분도 있었구나 싶었다. 무엇보다 잘 숙지해서 다른 아이들을 잘 돌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다.

인형을 사용해 아이 목욕시키는 실습도 해보고, 동화구연, 종이접기 등 여러 실습 시간도 있었다. 바로 아이와 놀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놀이법들이라 많은 도움이 되었다. 종이접기 시간에 만든 놀잇감으로 아이와 재미있는 놀이 시간을 가졌고, 아이와 함께 그동안 안 해보던 종이접기를 해보며 새로운 놀이를 시도해 볼 수 있어서 더 유익했다.

40시간의 수업을 마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기시험도 있었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이라 많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시험’이라는 틀은 언제나 긴장하게 만든다. 시험을

위해 복습도 열심히 하고, 수업도 잘 들었다. 감사하게도 이후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연락 받았고 나는 베이비시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돌아보니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을 뗄 수 있었다. 아이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젠 나도 챙기면서 살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베이비시터로 좋은 만남을 위해 문을 계속 두드리려 보아야겠다.





장려상

아이와 함께 성장한 나의 평생학습 이야기



이*문

야나두 원격평생교육원 (하루1장 스르르 학습지)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1학년에 합격해 육아와 공부를 병행하게 되었다. 무사히 4년을 다니고 졸업을 하여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공부하는 틈틈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인증서도 취득을 하였다. 그러나 나는 늘 ‘배우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현실 속에서는 늘 일과 가정이 우선이었다.

특히 아이를 키우며 시간을 쪼개 쓰는 삶이 이어지다 보니, 나를 위한 공부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나곤 했다. 그러던 중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을 알게 되면서, 나는 오랫동안 미뤄 두었던 꿈에 다시 시동을 걸게 되었다. 이용권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금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응원처럼 느껴졌다. 그 말 한마디처럼, 나의 배움의 여정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다. 작년, 나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온라인 강의를 신청했다. 사회복지사는 늘 관심이 깊었던 분야였고, 언젠가는 전문적인 공부를 다시 하고 싶었다.

나는 출퇴근 시간, 육아, 가사 등으로 고정된 시간을 비우기 어려웠기에 온라인 강의를 가장 알맞은 선택이었다. 휴대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강의를 재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었다. 짧게는 10분, 길게는 30분 정도의 자투리 시간을 모아 학습에 투자했다.

새벽잠이 일찍 깬 날에는 아이가 깨기 전까지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강의를 듣기도 했고, 집안 일을 끝낸 밤에는 책상 앞 대신 소파에 앉아 모바일로 복습을 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책 한 권도 완독하기 힘들었던 나였지만, 강의를 꾸준히 듣다 보니 어느새 여러 단원을 차근차근 완주하게 되었고, 시험 준비가 ‘버거운 도전’에서 ‘할 수 있는 일’로 바뀌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배움의 기쁨이 다시 살아난 것이 큰 보람이었다. 시험 당락을 떠나, 내가 다시 삶의 중심에서 ‘내 이름을 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뿌듯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그 첫발을 내딛게 해준 소중한 계기였다. 올해, 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바로 ‘영어 공부’이다. 야나두 온라인 영어 강의를 신청해 오랜만에 언어 공부에 뛰어들었다. 사실 영어는 늘 배우고 싶어 하면서도 “언젠가”, “시간이 나면”이라고 미뤄두던 영역이었다. 그런데 영어

공부를 시작한 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하나 생겼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집에서 자연스럽게 ‘엄마와 아이의 공동 학습 시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내가 영어 강의를 듣는 걸 본 초등학교 아이가 어느 날 물었다. “엄마도 영어 공부해? 나도 학원에서 오늘 문법 배웠는데!” 그 말을 시작으로 우리는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공부 친구가 되었다.

내가 강의를 보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아이에게 먼저 물어보기도 했다. “이 단어, 혹시 학원에서 배운 적 있어?” 그러면 아이는 자신 있게 설명해 주고, 때로는 학원에서 배운 예문까지 들려주었다. 그때 아이의 얼굴은 정말 자랑스러워 보였다. “엄마가 나한테 영어를 묻다니!” 이런 표정을 지으며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공부가 단순히 나 혼자만의 성취가 아니라 아이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깊게 느꼈다. 또 아이가 숙제를 하다가 어려워하는 문장을 만날 때면, 내가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을 떠올리며 함께 해결해 주기도 했다. 물론 나도 완벽하진 않았지만,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아이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던 것 같다. 서로의 공부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경험은 우리 가족에게 조금은 특별한 일상이 되었다.

덕분에 우리 집에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찾아왔다. 예전에는 “공부하자!”라는 말이 아이에게 부담스러운 지시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엄마 오늘 강의 들었어?”라는 아이의 말이 먼저 나오곤 한다. 나도 아이도 각자의 공부를 하면서 서로를 응원하는 동료가 된 셈이다. 혼자서는 쉽게 포기할 수도 있었던 영어 공부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덕분에 더 이어갈 힘을 얻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아이의 태도였다. “엄마도 열심히 공부하니까 나도 더 잘해야겠다.” 이 말은 올해 내가 들은 말 중 가장 무클한 말이었다.

어릴 때 부모의 행동이 아이에게 가장 큰 교육이라는 말처럼, 내가 꾸준히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도 자연스럽게 자기주도적인 자세를 갖게 되었다. 반대로 나 역시 아이를 보며 자극을 받았다. 아이가 숙제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오늘의 강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책상 앞에 다시 앉았다.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비추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울 같은 존재가 되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단순한 교육비 지원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그 안에는 ‘엄마로서의 나’,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나’,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나’가 모두 담겨 있다. 배움은 정해진 때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경험을 통해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기쁨은 예상하지 못한 보너스 같은 선물이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뿐 아니라, 아이와의 관계와 집안의 분위기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경험은 앞으로의 나에게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나는 평생교육이용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다. 영어뿐 아니라 아이와 함께 배울 수 있는 문해 교육,

문화 예술 강좌, 혹은 직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강의에도 관심이 많다.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시기를 따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용기’라는 것을 나는 이번 과정을 통해 배웠다. 나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배움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누군가의 배움이 다시 가정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계속되기를 소망하며, 나 또한 그 흐름 속에서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작게는 나의 하루를, 크게는 나의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 주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와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들은 앞으로도 내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장려상

행복을 주는 평생교육이용권



박*진

헬스엔젤스 필라테스 광명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명언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며 이 명언이 정말 옳다는 생각을 매일, 매 순간 하게 됩니다. 비단 아이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 있는 한 사람이 그 삶을 올바르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 마을, 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평생 자기 교육을 계속하고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성숙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그것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은 사회의 각 구성원들을 위한 것이자, 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평생교육이용권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는 교육의 홍수 속에 살다가, 20대 중반부터는 또 가르치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출산을 겪으며 배움의 기회도, 열정도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평생교육이용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운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위한 부모로서의 배움 말고,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배움의 기회였기에 참 설레었습니다. 사용기관을 찾아보면서, 단순히 취업준비와 자격증 준비를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운동과 취미 등 아주 다양한 영역의 교육이 있다는 점이 저를 더 들뜨게 했습니다. 어떤 것을 배워야 할까, 뭘 배워야 좋을까, 마치 선물을 고르는 아이처럼 이것저것 열심히 찾아보며 둘러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간절히 기다려왔던 둘째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겨운 입덧 기간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계속된 안내 문자에 힘을 얻어, 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저는 오랫동안 정말 하고 싶었던, 그러나 금액의 부담 때문에 선불리 마음을 먹을 수도 없었던 필라테스 운동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산 후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이를 온전히 양육하고 집안일을 도맡으면서 온몸이 아프게 굳어있는 상태였는데, 이 상태로 둘째를 또 낳고 양육하면 도저히 체력이 따라주지 않을 것 같아 신중하게 결정한 사용처였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이라 전문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대충이지 않을까? 라는 염려

가 무색하게, 운동하는 환경도 또 강사진도 정말 쾌적하고 전문성 있는 곳이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임산부 전문가도 추천해 주시고, 또 평생교육이용권 사용도 민망하지 않게 잘 설명해 주시고 결제해 주셨습니다. 저를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은 산전산후 전문가이자 아이 둘을 낳고 양육 중인 강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몸 상태를 면밀히 살펴주실 뿐만 아니라 공감대도 잘 맞고 편하게 운동을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잔뜩 굽어진 어깨를 여는 운동을 하고, 임신으로 인해 불편한 몸 근육을 풀고, 출산에 용이한 자세와 근육을 강화하고, 출산 후에 제 몸에 맞는 스트레칭도 알려주시며 아주 열정적으로 운동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언제 다시 운동을 시작해도 되는지, 어떤 물건을 사용해서 스트레칭 할 수 있는지 등 수강권이 끝나도 제가 계속 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격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자격증이나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 언어 교육 등이 아닌 제 몸을 배우는 데에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했습니다. ‘체력이 국력이다!’라는 옛 말이 있듯, 이번 배움을 통해 저는 곧 태어날 둘째 아이를 양육할 힘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격증이나 성과는 없을지라도, 저는 이번 배움을 통해 더 값진 것을 얻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평생교육이용권을 통해 각자에게 값진 배움을 얻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공모전을 통해서나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과의 만남으로 활력 넘치는 노인 일자리도 얻었다.



한*희

국제컴퓨터학원 (ITQ 엑셀자격증반)

1.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하기까지 나의 상황

저는 올해 만 70세 나이로 요즘으로 치면 신노년 정도로 체력 면에서나 활동 면에서 그렇게 근로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어려운 나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 몸에 이미 장애가 있어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사실상 부적합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직업 군인으로서 장교(예비역 소령)로 2000년에 전역하면서 왼쪽 발목의 인대 파열과 연골 파쇄화가 오래되어서 전역 시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발목 수술을 했기 때문에 오래 서서 하는 일은 제게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군에 1975년에 입대해서 주로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기에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어서 나름 능숙하게 사무 관련 프로그램 엑셀, 워드, 데이터베이스 등을 할 수는 있었지만 당시에는 국가 자격증 제도 자체가 없었고, 나중에 생겼을 때는 관리자 신분이기에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막연히 노인 복지관에서 여러가지 어학 프로그램이나 건강 강좌만 듣다 보니 생산적이지 못함은 물론 연금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생활 형편이 빠듯하기도 해서, 과거에 했던 경험을 살려서 복지관, 주민센터에 행정 보조 요원으로 시간제 근무를 하는 일자리를 알아본 결과, 뭔가 “행정 업무 자격증”이 한 개라도 있어야 지원해서 합격 후 근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침 인터넷 검색 중 서울시에 이렇게 좋은 평생교육이용권 제도가 있다는 것을 구세주처럼 우연히도 발견해, 좀 늦게 알았지만 빨리 신청해서 다음과 같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2. 행정 관련 PC 자격증 취득으로 육체 근로에서 행정 사무직으로 취업 준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엑셀 ITQ 자격증을 따기로 하고, 집에서 가까운 전철역 인근의 민간 학원인 국제컴퓨터학원에 25년 9월 14일 신규 수강 등록을 하고, 평생교육이용권 카드(농협)로 결제했습니다. 25년 11월 8일, 국가정보기술자격(ITQ) 한글 엑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2개월에 걸쳐 하

루에 약 2~3시간씩 꾸준히 기능을 익히고, 또 모의고사와 기존 출제 문제 등을 지도하시는 강사님한테 교재를 받아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시험 결과 발표는 25년 11월 27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시험을 치른 당사자로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짧지만 정말 치열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3. 학원 교육 과정과 나의 노력, 자세에 대하여

학원에서 개인 사비로 등록을 했든, 구직자 반이든, 남·녀 노소든 가리지 않고 수강하는 분위기가 매우 좋았고, 성인들 반이고 나이 든 학생들이어서 매우 정말 조심스럽고 정숙한 분위기로 오로지 학생 본인만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지도 강사님은 많은 자격증반 지도를 오래 전부터 하여서 그런지 제 능력에 맞게 지도를 꼼꼼히 해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26년도 노인 일자리 모집이 올해 12월 중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기에 이번 자격 시험에 꼭 합격하여야 하겠다는 복심으로 시험 한 달을 남기고는 집에서도 심야나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기출 자격증 문제를 계속적으로 연습하고 풀었습니다. 처음에는 3시간 걸리던 것이 점차 2시간, 1시간으로 시간이 단축되어서 저 역시도 놀라울 정도로 실력 향상이 되는 것에 기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엑셀에서는 함수 이용을 외우고 논리적이어야 하기에 이런 부분이 연로한 나이에 어렵고 힘들어서 마음 고생도 했고, 시험에 대한 리스크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나오는 엑셀 문제 풀이 과정을 출·퇴근 중에도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생소한 감이 없도록 반복 시청을 하였는데, 마치 고3 수능 대비 시험을 쳤던 그 시절이 생각나기도 하였습니다.

4. 자격증 취득 강좌 후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얻는 나의 보람과 혜택

첫째, 서울시에서 마련된 평생교육이용권의 고마움(무료)과 혜택이 너무 감사하지요.

둘째, 늦은 나이에 취업·자격 관련 학원을 이용하고, 진지한 노력으로 시험을 대비하면서 컴퓨터 앞에서 긴장감 있게 실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시간 단축을 위해서 매진하는 것이 또 새로운 의욕으로 젊은 마음을 갖게 했어요.

셋째, ITQ 엑셀 자격증을 획득해서 행정 업무 보조와 같은 새로운 일자리도 얻을 수 있겠지요. 과거 군에서 장교로 업무 처리를 많이 해본 경험과 결부되어서 주변에 젊은 후배들에게 뽐도 내고, 혹시 경험도 살리게 되는 업무가 있다면 처리를 잘해서 부러움도 사게 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뛰고, 이게 나를 활기차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넷째, 집에 부인한테도 어깨가 올라갈 만큼 단순 노무의 노인일자리보다는 그래도 나름 양질의 일자리에 근무하는 남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물론 일자리도 잘 찾아야 하겠지만요. 하하.

5. 결론 (평생교육이용권과의 만남이 기쁘고 기대가 넘치는 활력있는 노년에 단초가 되다)

세상에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는 일이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기술된 글은 자랑도 아니고 노력 없이 얻는 로또도 아닙니다. 서울시가 주는 기회 그리고 제 노력이 빚어져서 가정과 사회, 그리고 노년의 저에게 활력을 준 것을 생각하면 그 가치는 350만 원이 넘고도 넘는 것이 아닐까요? 주변 사람들도 꼭 기회를 잡아보라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불품없는 약소한 글 끝까지 보아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마칩니다.



2025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공모전 수상작

N행시

최우수상

정* 51

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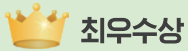
강*영 52

장려상

하*현 53

이*수 54

한*희 55



최우수상

정*

평

평생토록 배우고 싶은 것이 있나요?

생

생각만 하고 미뤄두고 살았지요?

교

교육은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

육지로 올라오는 바다거북처럼, 

이

이제는 새로운 배움의 땅으로 씩씩하게 나아가요.

용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는 당신을 응원하며,

권

권해드리고 싶어요. 평생교육이용권!



👑 우수상
강*영

평

평생토록

생

생업에만 몰두했던 내 자신에게

교

교육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육

육십에도 시작합니다.



👑 장려상
하*현

평	평생을 걸고 배우는 지혜
생	생각의 틀을 깨는 새로운 시작
교	교양과 기술로 삶을 디자인하고
육	육체와 정신을 모두 성장시키는 것





장려상

이*수

평

평생 배움엔 늦음이 없고 

생

생이 끝날 때까지 배움엔 끝이 없다

교

교실이 아니더라도 세상은 온통 배움터

육

육신의 아름다움보다 마음을 다스리고 키우는 게 진짜 배움





장려상

한*희

평

평생교육이용권으로 나를 위한 시간에 투자하세요

생

생각보다 가까이 있던 다양한 배움의 기회들이 펼쳐집니다

교

교재비 걱정 없이 부담 없이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고

육

육체적 피로를 잊게 해주는 지적 만족감을 경험하실 겁니다



2025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공모전 수상작

사용기관 우수사례



우수기관

에듀월원격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57
대교랭귀지스퀘어 원격평생교육원	62



우수기관

평생교육이용권이 만든 완주의 경험

- AI 기반 관리로 성장한 에듀윌 학습자·기관 우수사례

에듀윌원격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학습관리 우수사례

1. 기관 운영 및 콘텐츠 품질

에듀윌원격평생교육원은 AI 맞춤 학습을 지향하는 원격평생교육기관으로,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학습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을 완주할 수 있도록 토털 케어 학습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외부 콘텐츠를 단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개발한 양질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전공 교수진과 실무 전문가가 참여하여 교과를 설계하고, 제도·법규·현장 변화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교육 내용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 운영 전반을 엄격히 관리한 결과, 관련 평가 기준에서 현재까지 별점이 없는 기관 중 한 곳으로, 학사 관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 학습자 친화적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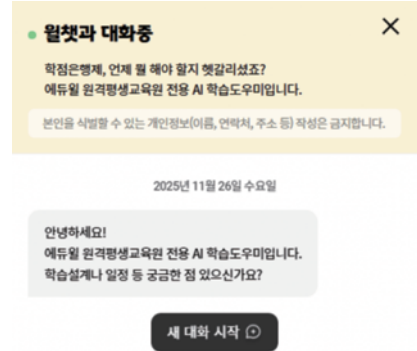
2025년에는 학습자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UI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 초시생 전용 페이지를 통해 학점은행제·평생교육이용권 제도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도 제도 이해와 과정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
- AI 챗봇 도입으로 단순 문의는 24시간 자동 응대, 복합 문의는 담당자 연결로 이어지는 스마트 상담 시스템 구축

[초시생 전용 페이지]



[AI 챗봇]



- 내선 1·2·3으로 세분화된 유선 상담 체계 운영
 - 학습설계 및 과정 안내
 - 학사행정 및 성적·수료 문의
 - 실습·기타 문의 등

이를 통해 학습자 니즈에 맞는 전문 상담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정 선택 단계에서도 목표·상품별 전용 페이지를 구성하여, 자격증 취득, 학위 취득, 교원·사회복지·보육 등 목적에 맞는 과정을 한눈에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3. 1:1 멘토링 기반 맞춤 학습설계

에듀윌원격평생교육원은 단순 온라인 강의 제공을 넘어, 학습자 1:1 전문 멘토 제도를 운영합니다.

멘토는 학습자의 학력, 진로, 자격 취득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별 학습 로드맵을 설계하고,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가능 과목과 비용 구조를 함께 안내하여 학습비 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수강료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해,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개강부터 종강 이후까지 이어지는 학습관리

개강 후에는 기수제 운영을 통해 매주 학습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주차별 수강 진도율 확인
- 사전학습, 과제, 퀴즈, 중간·기말고사 응시 여부 관리
- 문자·알림·유선 안내를 통한 마감 일정 재안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이수·미응시를 최소화하고, 학습자의 합격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차별 수강 진도율 모니터링 시스템]

번호	차수	이름 ▲	아이디	과목명 ▼	주차	교시	페이지	접속시간	출석 / 페이지	접속IP	공점
155	2025년 2~4차	최*숙	90	정신건강론	1	1	1. 학습하기	2025-09-10 오전 8:02:15	오 / 오	220.123.*.11	
154	2025년 2~4차	최*숙	90	정신건강론	1	2	1. 학습하기	2025-09-10 오전 8:35:17	오 / 오	220.123.*.11	
153	2025년 2~4차	최*숙	90	정신건강론	2	1	1. 학습하기	2025-09-19 오전 8:35:33	오 / 오	220.123.*.11	
152	2025년 2~4차	최*숙	90	정신건강론	2	2	1. 학습하기	2025-09-19 오전 8:35:16	오 / 오	220.123.*.11	
151	2025년 2~4차	최*숙	90	정신건강론	3	1	1. 학습하기	2025-09-24 오전 10:03:27	오 / 오	220.123.*.170	
150	2025년 2~4차	최*숙	90	정신건강론	3	2	1. 학습하기	2025-09-24 오전 11:05:02	오 / 오	220.123.*.170	

[미이수·미응시 방지를 위한 자동 알림 발송 시스템]

☐	번호	수신자	아이디	발송내용	발송일	수신결과
☐	56	정		[에듀윌] 사회복자실천기술론 중간고사 미응시!...		발송
☐	55	정		[에듀윌] 사회복자실천론 중간고사 미응시!1...		발송
☐	54	이		[에듀윌] 심리학개론 중간고사 미응시!1.1...		발송
☐	53	박		[에듀윌] 경영학개론 중간고사 미응시!1.1...		발송
☐	52	박		[에듀윌] 경영학개론 중간고사 미응시!1.10(월) 16시59분 까지 반드시 응시!		발송
☐	51	박		[에듀윌] 마케팅원론 중간고사 미응시!1.1...		발송
☐	50	박		[에듀윌] 성장기자녀의이해와부모역할 중간고사 ...		발송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관계를 끊지 않고, 담당 멘토가

- 학습자 등록
- 학점인정 신청
- 학위 신청
- 자격증 신청 등

후속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하여, 학습이 단순 수료에 그치지 않고 자격·학위 취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학습자등록·학점인정 신청 매뉴얼 제공 화면]

[에듀윌 원격평생교육원] 25년 4분기(10월) 학습자 등록 & 학점인정 신청 가이드 자료입니다. [🔗](#)

2025. 10. 24. (금) 16:17

보낸사람  평생교육원_대표메일 수신<studywill@eduwill.net> 메시지 | 약속초대

받는사람 

숨은참조 

첨부파일 4개 | 모두 저장

 회원가입 & 학습자 등록 (12).pdf 1MB	  
 학점인정 신청(에듀윌, 사이버대 이수과목).pdf 1MB	  
 학점인정 신청(전적대 이수 학점, 자격증) (16).pdf 1MB	  
 2025년 4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접수계획(개인학습자).pdf 509KB	  

eduwill

학습자님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은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기간입니다.

해당 과정은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학점을 취득한 분이라면 **최소 1번은 꼭** 하셔야 합니다.

① 학습자 등록 :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처음으로 인적사항, 희망 과정 등을 등록하는 절차.
→ **최초 1번만 진행, 기존에 학습자 등록을 하였다면 필요X.**

② 학점인정 신청 : 이수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안내 매뉴얼 제공]

공지사항

Home > 학습지원센터 > 공지사항

교육원 공지

사회복지현장실습 공지

교육원에서 다양한 행사소식과 함께 주요공지사항을 전해드립니다.

제목	[필독]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신청방법 안내 (25.10.16)		
작성자	eduwill	작성일	2022-07-01
첨부파일	온라인자격신청_안내문 (14).pdf	조회	21671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방법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이 완료된 학습자만 가능합니다. 신청 전, 학점인정 여부 및 구비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5. 교육 기회 형평성과 동기 부여

에듀월원격평생교육원은 교육 소외 계층에게도 동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이용권과 더불어 다양한 장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다문화 가정
- 보훈대상자
- 새터민 등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장학 지원을 제공하며, 학기별 우수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을 통해 학습 의욕과 성취감을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에듀월원격평생교육원은 AI 기반 시스템, 맞춤형 멘토링, 안정적인 기관 운영, 장학 지원이 결합된 학습관리 모델을 구축하여,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학습자에게 신뢰 받는 원격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잇는 외국어 학습의 새로운 길



올해는 저희 기관에게 있어 매우 의미 있는 변화와 도전의 해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다시 등록을 하면서, 단순히 수업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학습자들이 진정으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기관의 주요 커리큘럼인 '차이홍 TalkTalk'과 '차이홍 유팩스'의 4개월 과정의 학습 상품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금액에 맞추어 3개월 학습비 수준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기획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에게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해 드리고자 한 것이었고, 이는 단순한 수업 제공을 넘어, 학습자에게 '배움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담은 정책이었습니다.

하루 20분 내 삶이 달라지는 시간
'대교랭귀지스퀘어 프리미엄 1:1 화상수업'

학습 상담 신청 바로가기

기업 교육 상담 바로가기

EVENT 2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자에게 드리는 특별 혜택 ***
차이홍 유팩스, TalkTalk 3+1 과정



이번 프로모션은 단순히 등록하는 회원의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실제로 외국어 학습을 경험하며 자신감을 얻고, 지속적인 성장의 동기를 마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고, 학습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8월 이후 매달 평균 7건 이상의 문의가 꾸준히 들어왔으며, 11월 기준으로 10명의 신규 학습자가 실제로 외국어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신규 회원 수를 넘어서 평생교육이용권이 학습의 첫걸음을 내딛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수치로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는 노인 평생교육이용권을 활용한 고령 학습자들의 도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흔이 넘는 한 학습자 분은 “중국어를 배워 혼자 중국 여행을 가는 것이 오랜 꿈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화로 회원가입부터 결제, 수업 등록까지 하나하나 안내해 드렸고, 여러 번 반복 설명이 필요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디지털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의가 모든 장애를 이겨냈습니다. 이제는 화상 플랫폼을 능숙하게 사용하며, 매 수업을 즐겁게 참여하고, 녹화 영상을 활용해 복습까지 성실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 삶의 활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평생교육의 진정한 힘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고령 학습자의 수업 화면]



또 다른 학습자 사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외국어 학습 경험이 전혀 없던 한 학습자 분은 “이번 기회에 외국어 하나 정도는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목표로 도전했습니다. 여러 기관의 체험 수업을 비교한 끝에 저희 프로그램을 선택하셨고, 수업 시작 두 달 만에 주 2회 규칙적인 학습을 이어가며 기초 회화 단계까지 도달하셨습니다. 본인의 발전 과정을 즐기며, 평생교육이용권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학습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아가 중국어 자격증 도전이라는 새로운 목표까지 설정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평생교육이용권이 단순한 ‘학습비 지원’을 넘어서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장시키는 제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외국어 초심자의 학습 현황]

② 학습정보

상용명	[화상]TalkTalk 3+1 주2회	전체회차	소진회차	
		32	18	
학습기간	2025.09.15~2026.01.28	진행률	출석률	출석
진행상태	진행	56.25%	100.00%	18
			결석	0

③ 수업관리

NO	수업일시	강사	수업상태	수업관리	출결처리일시
1	2025.09.19 21:40~22:00		출석	수업결과	2025.09.19 23:02
2	2025.09.19 22:00~22:20		출석	수업결과	2025.09.19 23:02
3	2025.09.26 21:20~21:40		출석	수업결과	2025.09.26 22:05
4	2025.09.26 21:40~22:00		출석	수업결과	2025.09.26 22:06
5	2025.10.02 21:20~21:40		출석	수업결과	2025.10.02 22:04
6	2025.10.02 21:40~22:00		출석	수업결과	2025.10.02 22:04
7	2025.10.16 17:20~17:40		출석	수업결과	2025.10.16 18:04
8	2025.10.16 17:40~18:00		출석	수업결과	2025.10.16 18:05
9	2025.10.22 17:20~17:40		출석	수업결과	2025.10.22 18:12

한편, 저희는 올해 또 다른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기존에는 1:1 중국어 화상 학습 중심으로 운영되던 ‘차이홍화상은 원격평생교육원’이었지만, ‘차이홍 시스템으로 다른 외국어도 배우고 싶다’는 기존 학습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바탕으로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까지 외국어 범위를 넓혔습니다. 더불어 4분기에는 교육기관 명칭을 ‘대교랭귀지스퀘어 원격평생교육원’으로 변경하며, 보다 확장된 외국어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누구나 짧게 자주 외국어를 접하며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성인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 학습자를 위한 내부 운영 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으로 유입된 학습자들이 안정적으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기적인 만족도 조사, 맞춤 학습 계획 수립, 강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수업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지역 복지관, 노인 커뮤니티 센터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학습자들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사 양성과 체계 구축 역시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연령별, 학습 경험별 특성에 맞춘 지도법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우수 강사를 멘토로 선정해 신규 강사를 육성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강사 풀을 확보하고, 높은 수준의 수업 품질을 유지하며, 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은 단순히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제도 수준이 아닙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고령자와 외국어 초심자들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성취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움은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라는 평생교육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들은 평생교육 정책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 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대교랭귀지스퀘어 원격평생교육원은 더 많은 성인 학습자들이 외국어를 짧게, 자주 접하고, 이를 길게, 평생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배움의 문을 넓히고, 누구나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이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삶의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공모전 우수사례집



배움의 기록, 삶의 이야기

발행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한용진

편집인 지역평생교육팀장 최종성

지역평생교육팀 전하형

디자인 (주)디어

주소 (본원)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7(도화동) 14층

전화 02-719-6093

홈페이지 slei.seoul.kr

본 제작물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에 있습니다.

